

##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올 한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11월 2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전처리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다. 또한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는 11월 28일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

출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전처리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구슬)에서 심사하여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남구청장의 시정연설과 기획조정실장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12월 6일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전을 심사하였으며,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 공

공ברי 향상 등에 주안점을 두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 4,182억의 예산안과 71억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다.

그리고,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함께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건의 안전 처리를 끝으로 기해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 4건이 있었다.

지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안전은 다음과 같다.

(수정가결)

▲2020년도 예산안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용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찬성 의견 제시)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조례 발의

박구슬 의원(대표발의) 외 13명의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발의를 통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들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남구의회 이강영 의장(위 오른쪽 첫번째)은 지난 26일 강서구의회에서 개최된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다.



박구슬 의원



김근우 의원

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꾀했다.

김근우 의원(대표발의) 외 11명의 의원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안건들은 12월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 5분 자유발언

## 발달장애영유아 위한 재활치료 센터 건립

영화 말아톤에서 엄마는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게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차가운 현실에서 홀로 남아 고통받을 자식 생각에 남몰래 흐느끼는 현실입니다. 발달장애는 지적 및 자폐성 장애를 합친 것으로 전체 장애인 10%에 해당하며 남구는 1,178명이 있습니다.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경제선 아동 상황은 열악합니다. 장애편정을 받지 못해 복지정책에서 제외되고 인식도 부족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장애 경제선에 있어 발달 지연 및 학습부진이나 특정영역에서 발달이 뒤처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발달장애로 인해 사회에 적응이 어렵고 따돌림과 2차 장애로 진행됩니다.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은 계속 증가해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친구, 부모조차 우리아이가 조금 신난다, 원래 그렇다, 말을 하고 경제선 아동이란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기는 커녕 방치되어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사설센터의 감각 언어 놀이치료 치료비용은 한달에 몇백만 원이 되고 비용부담이 적은 복지관을 이용하여 해도 대가가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유아발달지연 서비스 소독기준 적용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어 해택 사각지대 장애아동에게 별도 지원 추진 및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에만 한정된 상담지원을 발달



고선화 의원  
(용호2, 3, 4동)

장애인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비장애인 형제자매 심리지원 프로그램, 장애이해를 통한 자녀이해 등 장애가족을 위한 유형·연령별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합니다. 장애, 비장애아동과 가족 행복과 발전을 위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경제부담으로 조기교육 및 치료를 포기했던 부모의 어려움을 돕고 장애 진행을 예방하며 가족이 겪는 문제와 사회적 비용발생 등을 방지해야 하며, 이용자의 접근편의성 등을 고려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아동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보완적 확대가 가능해야 합니다. 장애인 아동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한 개인과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입니다. 장애인은 도와줘야하는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하는 우리 이웃입니다. 장애인과 다르지 않는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분위가 확산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남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방안

대비 대책이라 하긴 턱없이 부족합니다. 스쿨존 불법 주차자, 속도위반 등 운전자 안전 의식 부재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급증의 큰 요인이며, 스쿨존은 등교 08:00~09:00까지, 하교 12:00~15:00까지 불법 주차자 금지 및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지만 지키는 운전자는 찾기가 힘듭니다.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9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정차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집행부는 충분한 지원을 하느니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설치했다더라도 운전자가 지키지 않고 개념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단순히 시민의식 부족이라 하기 보다 자치단체 사고근원 대책의지와 추진방법 부족도 원인입니다. 남구도 교육청과 연계, 대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스쿨존 불법주차자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차량과 빠른 속도로 스쿨존을 통과하는 차량,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멈춰서는 차량 등 아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을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지만 스쿨존 사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행중 차량사고가 전체 82.4%로 운전자 안전 운행 불이행이 전체 53.8%를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스쿨존 내 도로 안전시설 미비 및 허술한 관리시스템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구 스쿨존 보행로 설치사업은 설치공사만 했을 뿐, 사고



김근우 의원  
(대연 3, 5동)

최근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전반적인 삶 만족도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고 아동 3명 중 1명은 1주일에 30분 이상 운동을 포함한 놀이를 한 날이 하루도 없으며, 초·중·고·대학생 4명 중 1명은 하루 1~2시간 밖에 여가시간을 못 가진다고 합니다. 놀이는 아동 감정의 표현 방식이자 생활을 익히는 교육 시작점입니다. 아이에게 놀이는 단순한 노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배우고 성장함과 행복을 느끼는 수단이며, 놀이 그 자체가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아동 성장과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대남초등학교」 학생과 인근 유·초·중·고 학생은 10차선이 넘는 대로를 지나 통학하며, 방과후수업도 위험노출로 운동장을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고, 유아는 10년전 조성된 시설과 산지로 좁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놀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정책 제안합니다. 어린이 복합놀이시설(청의놀이터)을 설치해 주십시오. 부산 전 지역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청의형 놀이터)

## 대동골 어린이 복합놀이시설 조성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십시오. 사유지 매입과정에서 비용 증가로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나 대동골문화센터와 남부경찰서 사이 400평 가짜부 땅이 있어 추진에 도움될 것이며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황령산과 인근 아파트의 뜰개 식각 정비로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예산편성이 어렵다면, 지방채 발행 등을 해도 되며, 시설운영시 국비 지원도 가능하며 학부모회 등이 참여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복지부 아동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 창의성 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뿐 아니라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실내놀이터와 실외놀이터가 함께 조성된다면 계층별 어린이가 다채로운 활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놀이터 조성 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 뛰어놀 수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교 학생은 10차선이 넘는 대로를 지나 통학하며, 방과후수업도 위험노출로 운동장을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고, 유아는 10년전 조성된 시설과 산지로 좁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놀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정책 제안합니다. 어린이 복합놀이시설(청의놀이터)을 설치해 주십시오. 부산 전 지역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 트램.. 알아보기Ⅱ(교통편)



박민수 의원  
(용호1동)

부산시에서 공모선정된 트램 오륙도선은 경성대·부경대역~용호동까지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 확충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1단계는 경성대·부경대역~이기대 입구까지 1.9km로 완료후 부산시 계획에 따라 2단계사업이 진행됩니다. 2단계 이기대 입구~성모병원앞 용호로구간은 도로폭 협소·교포 혼잡도로 경전철이 검토되고 도로폭 20m(차도 15m 4차로)로 트램 건설시 차로 축소(편도 2차로→편도 1차로)로 정제되어 주변 상인과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성모병원 입구는 약 10%의 경사로 경사면에 대한 트램의 기술적 한계로 지형적 단점극복과 복개도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기대 입구~오륙도SK뷰아파트 구간은 부산시에서도 철도노력을 하겠지만 트램선 도로 점유에 따른 시민 교통불편이 야기된다면 오륙도SK뷰아파트까지의 계획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예상 문제점을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트램운행으로 인한 차선축소로 차로변 상가 배달 및 주·정

차 문제, 교통정체, 버스노선 감축과 조정 에 따른 주민불편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주민이 버스를 타고 트램 정류소인 이기대 입구 등에서 하차, 트램 환승 후 다시 지하철로 환승하는 번거로움입니다. 둘째, 트램운행으로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방안 마련입니다. 트램이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으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시간 없이 통과할 경우 차선축소로 교통량이 많아진 상황을 타개할 신호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기대 등을 찾는 관광객이 트램선을 인지못하고 차를 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변전설, 유류고 등이 설치될 하수처리장 차량기지를 건설에 따른 불편해소방안입니다. 차량기지에는 주거밀도가 낮은 지역에 설치되나 하수처리장은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해 있고 체육공원이 있어 주민 왕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올해 트램 홍보보수마비만 2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내년에는 8천만원에 홍보비로 책정했습니다. 트램사업 성공을 위해 장점만을 부각하는 홍보에 열 올리기보다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에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복지와 편의사업이 주민의 다양한 교통수단 선택이 축소되고, 교통체증 등 불편이 야기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게 됩니다. 남구청은 교통 영향평가 없이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예상 문제점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열린행정, 소통행정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상진 의원  
(대연 3, 5동)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마저 최근 둔화되면서 미래 잠재성장률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합계출산율이 0.90명이고, 해마다 2만명 이상의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마저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 경제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적격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광산업은 내외국인 유동인구 유입으로 소비와 유통을 늘리고 생산을 자극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산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남구에 관광관련 부서의 조직 확대·보강 또는 관광과 신설입니다. 남구가 관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거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광정책의 협의·관광관련 단체와 협력, 관광상품 개발·홍보 전달할 수 있는 조

## 남구의 관광도시화를 촉구하면서

직이 있어야 합니다. 남구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연결하고 상품화하는 전략이 없으므로 관광자원을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번째 남구 관광이 나아가길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관광개 욕구 변화, 글로벌 확대 등 내·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대응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 남구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남구 관광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점검하는 남구 관광체계구공 연구용역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관광도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타 문화관광 사업, 도시 관광사업, 경관사업, 교통계획, 재생사업 등과 연계추진이 필요함이다. 관광사업은 다양·복합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광사업과 UN평화문화특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옥외광고물정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공공디자인 경관사업, 거점지역기반시설, 관광교통 체계 정비 등 사업추진 여러 부서의 협력 및 연계가 필요하고, 또한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관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이 회의를 통하여 연도별 실행계획의 점검을 하고 피드백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남구 일자리 책임지는 해양클러스터



허미향 의원  
(용연동, 감만1, 2동, 우암동)

우암부두는 1990년 개장 이후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역할을 해왔으나 부산신항 개장후 물동량 감소, 재개발 등과 맞물려 2015년부터 일반부두로 전환, 현재 유휴화 상태입니다.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논의과정에서 관계부처 반대와 심의에서 수정되어 통과된 법률은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과 많은분의 노력에 우암부두와 인접지역 유휴항만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산업과 연관산업 집적, 융·복합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촉진, 주변 도시재생과 연계한 입주기업 근로자 복지 및 정주여건 마련, 문화·교통·편의시설 구축 등을 통해 클러스터다운 조성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까지 277억원의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2021년부터 마린나비즈센터, 지식산업센터, 수소연료전력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마린나비즈센터는 고부가가치 마린나산업 육성을 생산유발효과 9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37억원, 취업유발효과 743명 등 경제활성

화가 기대됩니다.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지 입지 애로를 겪고 있는 해양산업 분야 50여개 업체에 입주·성장을 지원하며 247명 일자리창출이 기대됩니다. 친환경 수소연료전력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은 신성장동력인 수소선박기술을 개발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조선기자재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1,157명 일자리창출이 기대됩니다. 용당·감만, 우암지역 주민은 한국 발전을 위해 자신의 안락한 삶을 내려준 곳입니다. 컨테이너부두가 경제발전으로 한국을 먹여 살렸지만 지역주민은 바다 근처에 갈수 없었고, 컨테이너 차량으로 소음과 교통사고에 시달렸습니다. 오랜시간 한국 발전을 위해 참여한 지역주민을 위해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지난 12월 5일 해양클러스터 착공식이 그 시작입니다. 부산시는 북항통합개발, 2030부산월드엑스포, 해양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원도심활성화를 통한 부산을 통째로 바꾸는 부산대개조 견인자 역할을 하도록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와 정부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산항만공사는 유휴화 우암부두를 항만과 시민이 상생하는 해양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세계적인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구는 대한민국 최초 오륙도 트램, 실내체육관 2관, 해양클러스터 착공, 용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등 많은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만 보고 가야 합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합니다.